

들어가면서

에스겔서는 유다의 포로기 현실을 다루는데, 유대교에 있어 바빌로니아 포로기는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다. 이 기간 동안에 신명기 역사서(DtrH)가 집필되었으며, 또 옛 예언(서)들이 새로운 역사적 상황 하에서 다시 읽히던 시절이다.

- 아모스: 8 세기에는 베엘과 북왕국을 향해 유다의 입장에서 심판의 정치적 메시지를 선포. 이후 7 세기 요시아 왕 때에는 통일왕국 회복을 위한 청사진으로, 그리고 6 세기 포로기에는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 읽혔다(암 5:25-27; 9:11-15).
- 호세아: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지만 후에 유다에게는 교훈으로 작용—"돌아오라(Return)".
- 이사야: 소위 제 1 이사야 (1-39 장)에 이미 포로기와 그 후의 역사적 현실/상황이 포함되어 있다.
- 예레미야: 북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가 유다에게 교훈이 된다. 30-31 장 등은 유다왕국 멸망 후 새로운 세상을 제시한다.

A. 에스겔서의 특징

- 두 개의 superscription
 - "제 삼십년 사월 오일에...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" (1:1) Q. 포로기 30 년? 혹은 에스겔 나이? (후자는 요시아 왕 개혁 30 년: 622-30=592 BCE. 그럴듯한데, 본문에 증거 불충분)
 - "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오년 그 달 오일에" (1:2) => 593/2 BCE
 - 같은 년도를 뜻한다면, "제 삼십년"을 에스겔 나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. 사독계 제사장 임무가 시작되는 때 (민 4:30). 에스겔 첫 번째 포로들 중에 포함되었음 (왕하 24:10-17; 렘 24:1-10; 52:28).
- 에스겔서 구성: 심판에서 회복으로
 - 1-24 장: 예루살렘 심판. 겔 3:26=>24:27 (33:22-23)
 - 25-48 장: 예루살렘 회복
 - 25-32 장: 이방 신탁. 왜? 야훼가 모든 세상의 군주(sovereignty)임을 확인!
 - 33-48 장: 예루살렘 회복. 33 장에서 에스겔이 파수군에 임명=> 또 다른 소명 이야기.
- 사제 전통
 - 날짜를 정확히 기록=>P 문서의 특징. 포로된지 제 5 년 (겔 1:2)부터 제 27 년까지(29:17)=> 597 을 기준하여(왕하 24:15) 약 570 년까지. 고레스가 바빌론을 점령한 언급이 없다.
 - 성전이 하느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유지한다. =>거룩과 정결 문제. 포로기 이후 회복을 위한 청사진 역시 성전을 중심으로 (40-48 장).
 - 예루살렘(성전)의 부정함(impurity)이 멸망의 주요 원인 (8-11 장).
- 환상과 상징적 행위
 - 병거 환상
 - 병거(chariot, Heb. מַרְכָּבָה *merkabah*)를 타고 다니는 시내산 전통이고, 다른 하나는 야훼가 스랍/그룹(cherubim) 위에 앉아 계신다는 예루살렘 전통 (cf. 이사야 6 장).
 - 네 생물: 사람(지혜와 의사소통), 사자(유다 왕권—신적 주권/sovereignty), 소(활력과 다산), 독수리(기동성/mobility). 특히 신의 임재란 면에서 기동성은 포로기에 더욱 중요.
 - 영광(כְבוֹד, 카보드)는 사제 전통에서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. 이사야에서 처럼 환상은 파송을 전제한다. 곧 파수군의 역할이다 (겔 3:16-21 => 33:1-9).
 - 멸망환상
 - "도성 집행인"들이 예루살렘을 통과하며 성전의 가증한 짓에 반대한 사람들 이마에 표식을 한다. 이들은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문설주에 바른 피와 같다 (출 12:23).
 - 에스겔 10 장의 숫불은 파괴와 함께 정화의 의미로 쓰인다.
 - 예언자 상징 행위
 - 4 장. 도성이 포위당하는 장면 묘사. 390 일간 이스라엘의 죄를 40 일간 유다의 죄를 짊어진다(מַשָּׂא; 겔 4:5-6)

- 죄를 당당하다(נָחַם). 사제들은 '회중의 죄를 지지 위해' 속죄제물을 먹고(레 10:17), 희생양들이 온 이스라엘의 '죄를 지고' 광야로 간다 (레 16:21-22).
- 또한 머리와 수염을 칼로 밀고 머리카락을 나눔으로, 예루살렘 주민의 운명을 예고. 칼, 역병, 기근, 포로의 위협에 대해서는 레 26:23-33 참조.
- 개인의 책임 (individual responsibility)
 - 예레미야, 에스겔처럼 포로기 신학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주의 사상의 등장이다(18 장). 렘 31:29-30; 겔 18:2
 - 신명기 신학에 대한 도전 (출 20:5 //신 5:9).
 - 공동책임. "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." (렘 31:29; 겔 18:2)
 - 욥기 21:19, "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."

B. 심판과 회복

- 하느님의 영광 (קְבוֹד־יְהוָה, the glory of the Lord): 겔 1:28
 - 성전을 떠남
 - 성전에 계심: 1:28-->3:23-->10:4
 - 성전 문지방을 떠나 동쪽 문으로 향함: 10:18-19.
 - 성읍 동편 산으로(겔 11:23). 왜? (바빌론이 동쪽에 위치=> 포로수용소로 향함)
 - 성전으로 돌아옴: reverse order (겔 43:1-5)
 - 성읍 동편으로부터 (겔 43:2)
 - 동쪽 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(겔 43:4)
 - 성전에 parking (43:5)
- 회복 신탁. 겔 11:19-20 // 겔 36:25-26
 - 새로운 영(spirit), 새로운 마음(heart)=> 생각.
 - 물로 깨끗게 함=> 사제 의식 (겔 36:25)
 - Open-heart surgery image. 당연히 아프지! (겔 36:26)
 - 마른 뼈 골짜기. 에스겔 37 장
 - 일단, "이스라엘에는 죽은 자의 부활사상이 없다" (콜린스, 295).
 - 여기서 부활(?)한 사람이란 개인이 아닌, "이스라엘 온 족속"이다 (겔 37:10-11).
 - "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"고 말하던 자들에게 "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," "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" 말하는 예언자의 은유적 표현이다 (겔 37:11-12).
 - 곡, 마곡 => 전설의 고향 (38-39 장)
 - 곡은 옛 이스라엘의 대적자로, 마곡은 그가 살던 지명이다. 앗시리아 본문에 구구(*gugu*)라 불린 이 인물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말한 "북쪽의 적"(foe from the north) 일지도 모른다.
 - 초점은 전설적인, 신화적인 기능에 있다. 옛부터 있던 적을 물리침으로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방식이다. 계시록 20:1-8의 마지막 갈등/전투에서는 곡과 마곡이 사탄(용, 뱀, 마귀)의 백성으로 그려진다.
 - 새 예루살렘
 - 회복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.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간 후(43:1-5),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생수의 강을 이루고 아라바(사해)로 흐른다 (47 장).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하고 실과가 풍성해 마치 에덴동산을 연상케 한다 (창 2:10-14).
 - 성전 중심, 사제 중심의 공동체 형성. 예배와 희생제사에 대해(43:12-46:24). 사독계열과 레위인 간의 구별이 엄격하다(43:19; 44:15). Cf. 레위인 사제에 차별 대우(44:10-14). 비교. 예레미야는 신명기 사관에 따라 레위인을 우대 (렘 33:21-22).
 -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 분배(47:13-48:35).

- 포로기 신학이 당면한 과제: 다윗 왕국의 멸망에 대해
 - 일반적 견해: 오? 야훼가 힘이 없구만 (바빌로니아 신, 마дук으로 전향) => 정체성을 바꿈 (Q. 창세기 1 장의 의미는?)
 - 유다 예언자들: Q. 바빌로니아 포로의 의미가 무엇일까? (신학 다시하기. 현재의 상황/질문 속에 옛 전통을 다시 이해)
 - 예레미야: 모세전통에 입각한 신명기 사관 제시. 왕권 견제.
 - 에스겔: 왕권, 예루살렘(성전)에 대한 새로운 이해 => 사제중심의 제의적 공동체 형성 (40-48 장). 왕권의 축소. 성전이 하느님의 임재를 뜻한다면, 부동의 건축물에서 기동성을 지닌 "하느님의 영광"으로.

결론/평가

- ✚ 에스겔 1 장의 병거 환상은 야훼의 이동성/가동성(mobility)을 강조한다.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더불어 유다의 하느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, 어디든 자유로이 이동하는 야훼의 임재를 재확인한다. 포로기 시대의 새로운 신학하기다. God is EVERYWHERE!!!
- ✚ 에스겔의 신학은 사제(priestly) 신학으로 holy/profane, clean/unclean 의 구별을 두지 않는 것 때문에 야훼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(겔 22:26 <= 레 19:19). 예루살렘 성전의 별망은 이에 대한 처벌이며,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이런 파괴가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화작업이다.
- ✚ 에스겔의 환상과 이상은 훗날 메르카바 신비주의(Merkabah mysticism)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,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. (참고로, 계시록이 에스겔을 인용/암시하는 것이 무려 100 군데 이상이다. Nestle-Aland, *Novum Testamentum Graece*, 795-796).

생각해 보기

1. 에스겔서는 많은 환상과 상징을 담고 있다. 그리고 이것들은 당시 문화의 산물이다. 예를 들어, 예루살렘에 빚댄 여인들에게 행하는 폭력, 처벌 등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?
2. 에스겔이 꿈꾸는 성전중심의 공동체를 지금의 현실에 맞게 옮긴다면?